

민선 4기 후반기 광주시정·전남도정 중점 추진과제

제3 순환도로 완공 앞당기겠다

광주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핵심 성장동력으로
구동체 육관 일대 아시아 다문화 공원 추진

침이다.

문화부문에서는 한국문화콘텐츠 기술연 구원을 유치해 문화산업을 기반을 확충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비해 구동체 육관 일대에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도 조성한다.

미래 환경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광 역위생 매립장 주변에 환경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 기반도 구축한다.

광주를 화순, 나주 등 인근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권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전개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 1호선을 나주공동혁신도시로 연장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도시 외곽 순환 도로의 완공을 앞당길 예정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1등 광주 실현을 위 해 후반기에도 생산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수도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 확충 등 광주가 광역권 거점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또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 건강타 운을 축으로 노인의료 복합서비스 단지를 조성하고 의료기기 산업단지도 육성할 방

LED밸리에 56개 업체 유치 100% 분양

일자리 5만4천개 창출…목표 40%대 그쳐

박광태 시장 공약사업 43건 중 12건 완료

박광태 광주시장의 민선 4기 전반기 공약사업 43건 가운데 모두 41건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약사업 완료 건수는 모두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첨단과학 산업 육성 등 민선 4기 공약사업 43건 중 모두 12건을 완료하고 29

코스 개발 및 관광기반 구축, 광주과기원 학부과정 개설, 폐선부지 푸른길 공원 조성, 무등산 훠손지 생태복원 등 굵직한 사업도 완료됐다.

그러나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3월 현재 5만4천개 일자리를 창출에 그쳐 목표 달성을 40%대에 머물렀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30일 민선 4기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후반기 시·도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시는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조성을 중심으로 생산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복지 인프리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쏟기로 했다. 도는 민선 4기 전반기에 역점을 뒀던 일자리 창출과 SOC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후반기에는 농어촌 민생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영산강 프로젝트 계획대로 추진

전남도

위기의 축산농 살리기·F1 경기장 건설 박차

연륙·연도교 등 활용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배 등 휴경농지의 생산화를 꾀하고,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절감시스템을 지원한다.

전남의 청정 이미지를 살린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 복합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이 단지는 식품가공기업과 연구단지, 물류유통단지를 연계시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최첨단 과학농기지의 개념이다.

섬 개발 등 해양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해양관광 교통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서남해안 일주도로와 연륙·연도교를 활용한 해안·해상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대규모 마리나 조성 및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용부두 건설도 추진된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속 추진된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 및 F1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남을 동부권·광주근교권·중남부권·서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산업을 균형적으로 육성한다. 또한 부산·경남과 함께 남해안을 수도권에 출입만한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해양경제권으로 육성한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항생제 양식·외래 양식 확대·유통안전 강화 등 청정 수산 정책으로 탈바꿈한다.

이와 함께 국제곡물 및 농자재 가격 상승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보리와 우리 밀 재

천일염 수출·골프장 설치 기준 대폭 완화

일반산업단지 지정 권한, 도지사에 위임

전남도 규제 개선 건의 185건 중 51건 수용

천일염 수출기준, 일반산단 지정 권한, 골프장 설치기준 등이 완화된다.

전남도는 185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결과, 이 중 천일염의 염화나트륨 수출기준을 현 행 97%에서 87%로 완화하는 등 51건이 수용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정부는 또 330만㎡ 이상 일반산단 지정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지전용 허가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도지사에게 위임돼 허가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며, 골프장 건설시 산지전용·진입

도로·숙박시설 등의 설치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지원, 기업도시 내 주거시설에 대한 1가구 1주택 특례적용, 국가지원 지방도 설계권한 위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어장면적 확대 등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Category	Value
LED Panel Production	56 companies, 100% completion rate
Employment	50,400 jobs created, 40% target reached
Industrial Parks Approved	185 cases, 51 cases accepted
Agricultural Output	Various figures including 1,120,000ha, 1,040,000ha, etc.